

장춘대학 계명학원

중한 협력 교육으로 응용형 인재 양성



▲ 장춘대학 계명학원 손혜걸 원장

중한 국제 협력 (중국 장춘대학과 한국 계명대학) 으로 설립된 장춘대학 계명학원이 글로벌 인재 양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교육계 주목을 받고있다.

단순한 국제 교류를 넘어 '4+0' 및 '2+2'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이중 학위와 국제적 경쟁력을 동시에 제공하는 계명학원의 성과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최근 기자는 장춘대학 계명학원의 손혜걸 원장을 만나 국제화 교육의 혁신적 탐구와 실천 경로에 대해 인터뷰했다.



▲ 장춘대학 계명학원 한국문화체험캠프

■ '젊고 활력 넘치는' 중외 협력 교육의 새 모델

장춘대학 계명학원은 중국 교육부의 비준을 받고 설립 (2022년 4월) 된 본과단계 중외 합작 교육 비독립 법인기구이다. 학원이 비준될 당시 전국에 동일한 유형의 기구는 3곳뿐이었으나 현재 한국과 협력하는 비독립 법인기구는 4곳으로 늘어났다. 장춘대학 계명학원은 경제 글로벌화와 기술 발전이라는 국내외 정세에 발맞춰 중한 양국의 선진적인 교육 리념과 우수한 교육자원을 바탕으로 문화교류와 전업 실천의 장점을 융합한 독특한 학생 발전 시스템과 인재 양성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학생들이 국제적 시야, 문화간 소통 능력, 혁신적 실천 능력을 갖춘 응용형 인

2022년 가을, 학원은 첫 신입생을 맞이하면서 현재 재적 (在籍) 생이 830명이며 2025년 9월에는 학생 규모가 1,1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중한 교육자원을 융합한 '이중 궤도' 모식

학원은 '현지 국제화 (在地国际化)'와 '국경간 교류 (跨境交流)'라는 이중 궤도 모식을 운영하고 있다. '2+2' 프로그램: 장춘대학에서 2년간 학습한 후 출국 요건에 부합되는 학생은 계명대학에서 2년간 유학할 수 있다. 학점은 상호 인정되며 장춘대학과 계명대학의 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춘대학의 졸업증서와 두 대학의 학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유학 기간 장춘대학의

등록금을 납부하면 계명대학의 등록금은 면제되며 항공권, 숙박비, 생활비 등은 학생이 부담한다.

'4+0' 프로그램: 장춘대학에서 4년간 전 과정을 완수하면 장춘대학의 졸업증서와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본과 석사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본과 4년 과정을 마친 후 계명대학 석사 입학 요건에 부합되는 학생은 우선적으로 계명대학 석사과정에 추천될 수 있다.

2024년 9월, 첫 기의 27명 학생들이 장춘대학 계명학원의 '2+2' 프로그램으로 계명대학에 파견되었으며 학원은 2026년에 이르러 '4+0' 이중 학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학생들이 출국 없이 중한 두 학교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써 진정한 '현지 국제화'를 실현할 예정이다.

■ 한국어 실력과 전문성 동시 향상

학원은 학생들의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 무료 한국어 듣기, 말하기 훈련 과정을 추가로 제공하여 기초부터 중급 수준까지 한국어 실력을 체계적

3개, 3등상 8개를 차지했으며 그중 3개 팀이 국가급 대회에 진출했다.

2024년 '2+2' 프로그램에 참여한 27명 학생중 6명은 한국에 남아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뛰어난 국제 적응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전문교육학부 (기계및자동차공학원, 전자정보공학원, 식품과학및공학원 등)와의 자원 공유를 확대해 학생들이 기타 학원과 동등한 실습 기회 및 대학원 진학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 조선어 서면번역 석사과정 신설 예정

학과 및 교수진 업그레이드를 위해 학원은 2025년 신입생 모집 규모를 300명에서 45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향후 석사과정 합작 프로젝트를 증가할 계획이다. 이외 계명학원의 우세를 발휘해 2026년에는 장춘대학 조선어 서면번역 방향의 MTI 번역 석사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학원은 여러명의 중한 명문대 박사로 구성된 교수진을 중심으로 더 많은 젊은 한국측 교사를 유치해 교수진의 연령 및 전업 구조를 최적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계명대학과의 석사 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해 '본과로부터 석사 및 박사까지'의 완전한 국제화 교육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현지 국제화'로 글로벌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학원은 중한 (장춘) 국제협력시범구와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자동차, 식품, 전자 산업의 인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장춘 소재 한국 기업과의 실습 및 취업 추천 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이다.

새 학기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주요 관심사인 유학 필요성과 비용 문제에 대해 손혜걸 원장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답했다. "'4+0' 프로그램은 해외 유학 없이 진행되며 '2+2'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에서의 등록금은 국내와 동일하고 숙박비도 저렴하다.'" 또한 "한국어는 필수과목이지만 입학 시 언어 기초 실력은 엄격히 요구하지 않으며 체계적인 교육과 실천 활동을 통해 대부분의 학생이 2년내에 기본적인 응용 능력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

김림성 중외 협력 교육의 혁신적인 모델인 장춘대학 계명학원은 '현지 국제화'를 핵심으로 자원 통합과 혁신적인 접근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문성과 국제적 시야를 겸비한 성장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4+0' 이중 학위 계획 추진, 학과 편성의 최적화와 함께 이 '젊은' 학원은 '전문성, 한국어 능력,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응용형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 김명준 최화 기자

장춘한국인 (상) 회, 길림성술문화박물관 방문

일전, 장춘한국인 (상) 회 정세명 회장과 김한신 부회장은 길림성술문화박물관을 방문해 색다른 중국 술문화를 체험했다.

길림성술문화박물관은 장춘시 남관구 명주사회구역 아태거리에 자리잡고 있는데 중국 첫 민영 공익성 술문화박물관이다. 6,000여개의 소장품으로 기네스에 '가장 많은 종류의 백주 소장'으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4A급 관광지로 길림성 문화관광의 특별한 명소로 손꼽힌다.

길림성술문화박물관은 술문화 전시를 통해 인류문명사를 재현하고 새로운 관광 유형을 선도하는 데 힘써왔다. 장춘한국인 (상) 회의 이번 방문은 길림성술문화박물관의 국제 교류의 폭을 넓히고 중한 양국의 술문화 교류에 새로운 가교 역할을 하였다. 박물관측은 앞으로도 문화 전파에 힘써 더 많은 국내외 방문객들이 중국 술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장춘한국인 (상) 회, 김명준기자



중한 협력 프로젝트

과일잼 제이에스컴퍼니 식품전문기업

편집자의 말 :

중한 경제협력을 선도하고 상호 투자 및 무역 활성화, 기업간 교류 확대를 촉진하고자 길림신문사는 KOTRA 장춘무역관과 공동으로 '중한 협력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중한 협력 프로젝트'는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과 한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국 기업에 효과적인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양국의 현지 투자자 및 파트너들에는 우수한 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자 한다.

소개된 제품과 협력 의향이 있거나 하반기 '중한 경제 관련 박람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KOTRA 장춘무역관 (위챗계정: KOTRA 长春贸易馆)으로 직접 연락하여 구체적인 협상 및 상담을 진행하기 바란다. 전문 상담을 통해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성공적인 상호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협력 회사 소개]

제이에스컴퍼니 (JS COMPANY)는 과일잼 및 과일청을 개발, 유통하는 식품전문기업이다. 이 기업은 한국 국내 농가와와의 협업을 통해 고품질의 과일을 선별하고 과일 본연의

JAMMINT 75% 고향량 라이트 딸기잼



1. 한국산 딸기 75% 고향량 딸기잼.
2. 첨염소로 만들어 당 함량을 낮춘 저당 잼.
3. 합성 첨가물 없이 원재료만으로 제조.

JAMMINT 75% 고향량 라이트 블루베리잼



1. 블루베리 75% 고향량 블루베리잼.
2. 첨염소로 만들어 당 함량을 낮춘 저당 잼.
3. 합성 첨가물 없이 원재료만으로 제조.

/ KOTRA 장춘무역관 제공

